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9〉

마음에 달통하면 선사다

학승이 물었다.
"일구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은 "응" 하고 대답했다. 학승이 한 번 더 물었다. 그러자 조수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야."

問 如何是一句
師應諾 僧再問
師云 我不患聾

일구는 선사들이 찾아오는 객승에게 한 마디 던지는 어떤 '한 마디'이다. 그 한 마디는 우주를 함축 해놓은 한 마디일 수 있고, 지상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도리가 담긴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답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그냥 "응" 하고 누군가에게 응대하듯이 한 마디 툭 던지고 말았다. 학승은 조주 스님이 분명 일구를 던져주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거듭 물었다가 선사의 핀잔을 받고 말은 것이다. 분명 일구는 맞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선사들의 선문답은 어떤 경우는 너무 깊이 생각하면 답을 지나치는 수가 있다. 특히 조주 선사는 일상사에서 대답을 가져 와서 들려주곤 했다. 이 일구도 깊이 나아가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답이 풀릴 것이다. 동시에 모든 이치와 통해 있는 오묘한 것까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갓난아기도 6식(六識)을 갖추고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급류의 물위에서 공을 친다."

問 初生孩子 還具六識也無
師云 急流水上打毬子

사람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면 어찌 거기서 한가히 공을 칠 생각을 하겠는가? 보통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생각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금생 한 생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수많은 세월을 윤회하며 길들여지고 습관 된 생명체이다. 그런데 어찌 어린 아이라고 습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육식(六識)은 눈·귀·코·혀·몸·뜻이 받아들인 것을 헤아리고 분석하고 느끼는 의식(意識)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별 차이가 없다. 우리의 의식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흐르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다.

그런데 이런 의식의 작용은 어린아이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면서도 공을 치는 것과 같다. 급하게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는 것이 바로 전생부터 배인 습성이라는 말이다.

학승이 물었다.
"하나하나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노승과는 백보(百步)나 차이가 있다."

問 頭頭到來時如何
師云 猶較老僧百步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동양의 철학과 불교를 알아서 나중에 전체를 다 통달했다고 해도 선사와는 항상 백보나 차이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사는 아는 것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선사는 앎에 의지해서 진리를 설하고 사람과 대담하지 않는다. 앎은 전체를 알 수 없다. 앎은 오로지 아는 것만 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때문에 앎으로는 우주의 진실을 꿰뚫을 수 없다. 알 수 있는 세계보다도 알려지지 않는 모르는 세계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선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통달해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세상은 마음이 만든 세계이다. 때문에 글자는 몰라도 마음에 대해서 달통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 가도 그 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선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삶에 연연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매순간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마치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끝까지 돌보듯이 선사의 중생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하니 그가 붓다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50
한국선과 선어록 20

무경실중록(無竟室中錄)

때와 장소에 걸림이 없어야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는 전주 출신으로 성은 홍(洪)씨이고 호는 무경(無竟)이며 자는 고송(孤松)이다. 12세 때 문식(文式)한테 출가했고, 추계유문(秋溪有文)의 법을 이었다. 저술로 〈무경집〉 3권, 〈무경실중어록〉 2권, 〈불조진심선격초〉 등이 있다.

〈무경실중어록〉 2권은 1738년 임실 신흥사 개판본이 전한다. 제1권에는 시문으로서 게시(揭詩), 고시(古詩), 절구(絶句), 율시(律詩), 게찬(偈贊), 고사(古詞), 고어(古語) 등 226수가 수록돼 있다. 제2권에는 8편의 문(文), 3편의 〈선가일용〉과 부록으로 선교대변(禪教代辨)이 수록돼 있다.

특히 제2권의 내용에는 무경자수가 이해한 선법 및 그 요의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인들에게 제시해준 횡수법(橫竪法)의 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초의 일심에는 두 가지 횡수(橫竪)가 있다.

먼저 생멸문의 횡수는 교언(教言)에 의거한 것으로 때와 장소[時·處]의 횡수이다. 말하자면 때와 장소에 걸림이 없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원융문(圓融門)이다. 이것은 곧 불혜(佛慧)로서 조(照)·적(寂)을 쌍차(雙遮)하는 것이다. 다음 진여문의 횡수는 법언(法言)에 의거한 것으로 이것과 저것[彼·此]의 횡수이다. 말하자면 피차가 상망(相望)하는 것은 수(竪)이고 피차가 불상망(不相望)하는 것은 횡(橫)으로서 이것이야말로 항포문(行布門)이다. 곧 이것은 조의(祖意)로서 조(照)·적(寂)을 쌍조(雙照)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佛)·조(祖)가 융통하고 차(遮)·조(照)가 불이한 도리야말로 곧 일심에 즉한 것이다. 이에 그 일심이라는 이름[名迹]을 내세우는 것은 여래선이고, 그 일심의 흔적[痕朕]마저 초월한 것은 조사선이다. 만약 이것을 일용생활에 비유하면 여래선은 한낮의 달에 해당하고, 조사선은 한낮의 태양에 해당하며, 이 둘을 융통시킨 선법은 한밤중의 삼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무릇 일심의 두 가지 횡수법을 모르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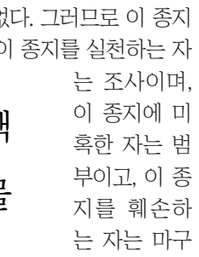
> 무경자수가 이해한 선법과 요의를 다룬 책
> 유·불·도는 하나라는 삼교설 주장한 인물

다음은 천태원돈의 관심법의 대목에서는 삼제원융이 곧 일심을 바탕으로 성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서 격외참선의 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선은 곧 고인의 조정(祖庭)으로서 참선납자로 하여금 곧바로 격외도리에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격외도리에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린다면 의리(義理)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종의 선교방편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몰자미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다. 무릇 납자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안을 제기해 공안을 참구하라고 말한다.

한편 선가의 정편설(正偏說)의 대목에서는 본래부터 사람들 모두한테 원만하게 구비되어 있는 성품에 대해 설한다. 곧 무극(無極), 성품을 지니고 있는 하늘은 그대로 원원적적(圓圓寂寂)해 애초부터 현현하고 묘명하다. 그 가운데서 처음에 정(正)과 편(偏)이 회호한 것이 선도가 비롯된 까닭이었고, 홀정(忽正)·홀편(忽偏)으로서 정편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선도의 작용이었으며, 능정(能正)·능편(能偏)으로서 편정이 끝이 없는 것이 선도의 바탕이었고, 바탕[體]과 작용[用]이 일리(一理)로서 자취를 남겨 놓은 것이 곧 선도의 종지였다. 그 선도의 종지야말로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설할 수가 없고, 십지보살의 지위에 오르더라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으며, 분별로도 알 수가 없고 무분별로도 알 수가 없으며, 관찰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으며, 외외하고 탕탕해 천고에 미치고 만세에 전승되면서 분명하게 홀로 우뚝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일체의 진찰에 두루하는 무량한 불조와 팔만의 법장과 1700가지의 공안이 항사의 진묵겁토록 모든 존재가 선도의 종지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이 종지를 터득하는 자는 부처이고, 이 종지를 실천하는 자는 조사이며, 이 종지에 미혹한 자는 범부이고, 이 종지를 훼손하는 자는 마구니이다. 비록 이처럼 불·조·범·마가 다를지라도 종지는 동일하다. 때문에 그 종지의 일(一)·이(異)를 초월하고 그 초월까지도 초월하면 그대로 반야가 현전한다. 이에 물(物)·아(我)가 동일한 근원이고 두두물물이 심체(心體)이고 묘용이다. 그래서 그 종지에 대해 침묵하면 곧 공왕의 증명이 되고 설법하면 노사나의 법륜이 되며, 바탕이 없는 바탕으로서 십허(十虛)를 두루 덮고 작용이 없는 작용으로서 십계에 널리 미친다. 이에 납승이라면 그 뱃속이 마치 드넓은 바다와 같고 금강의 안목을 갖추며 하나의 불덩어리와 같은 정진으로 그 정편의 도리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선가의 참학를 마쳤다고 말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설령 팔만대장경의 암송을 바다가 뒤집힐 때까지 하고 대법을 설해 자연물이 성불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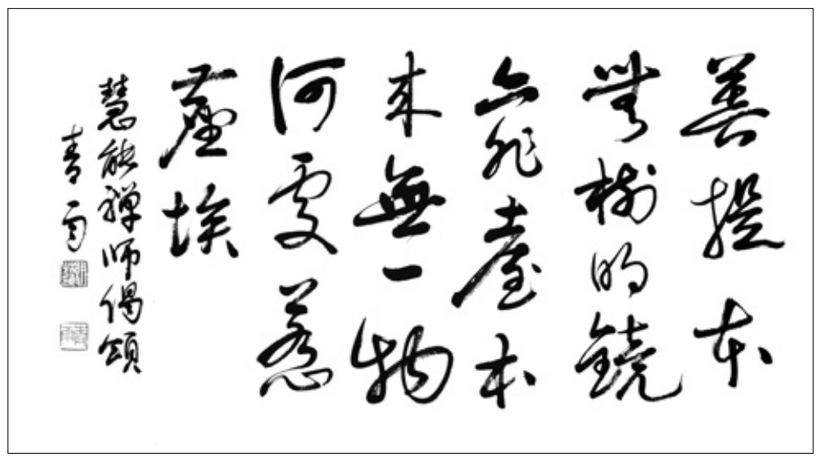
기타 삼왕(三王)·삼주(三珠)·삼신(三臣)이 호용에 대해 각각 세 수의 게송으로 도합 아홉 게송을 설하는 삼위호응호조(三位互應互照), 이회(里會)융통·도회(圖會)융통·총회(總會)융통의 삼위융통(三位融通), 순당(純堂)·향벽(向壁)·문답결의(問答決疑)의 선가일용(禪家日用)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선교대변(禪教大辨)을 수록해 선교에 대한 무경자수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18 육조단경구

본래 한 물건도 없다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진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도 또한 형체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 육조 혜능 대사의 〈육조단경〉

樹: 나무 수
鏡: 거울 경
臺: 대 대
處: 곳 처
埃: 티끌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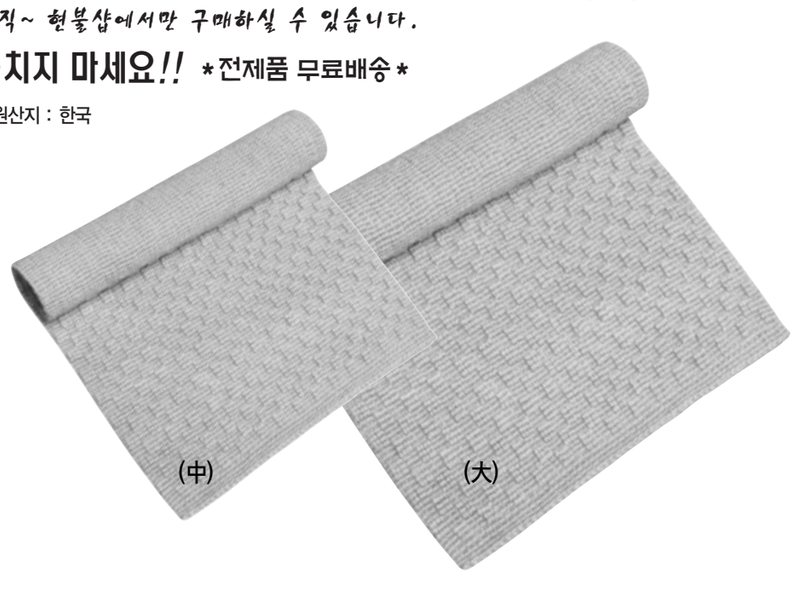
청혜진하래역무보
우능애처무비수리
선 사 게 송 야일대명본 물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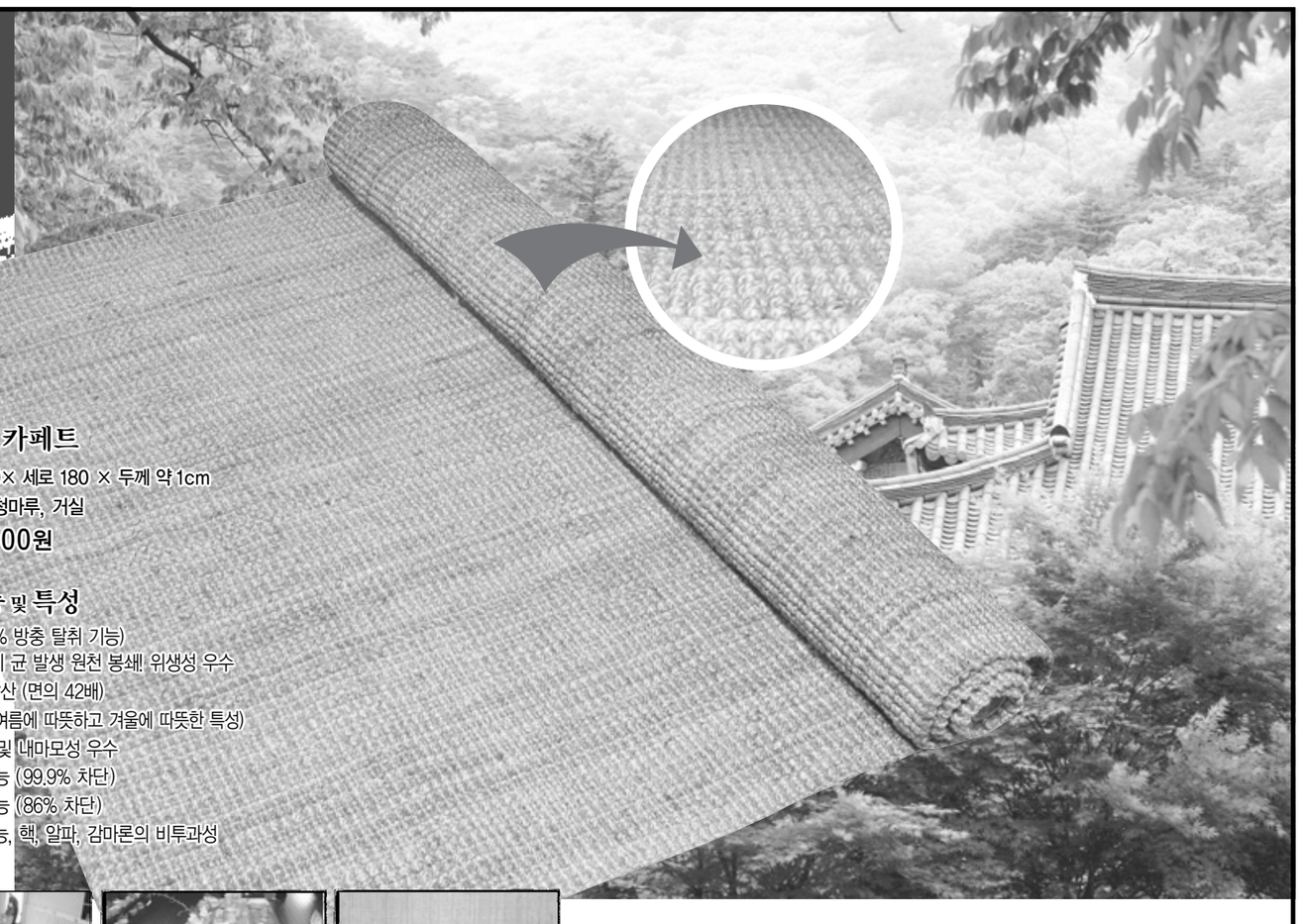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